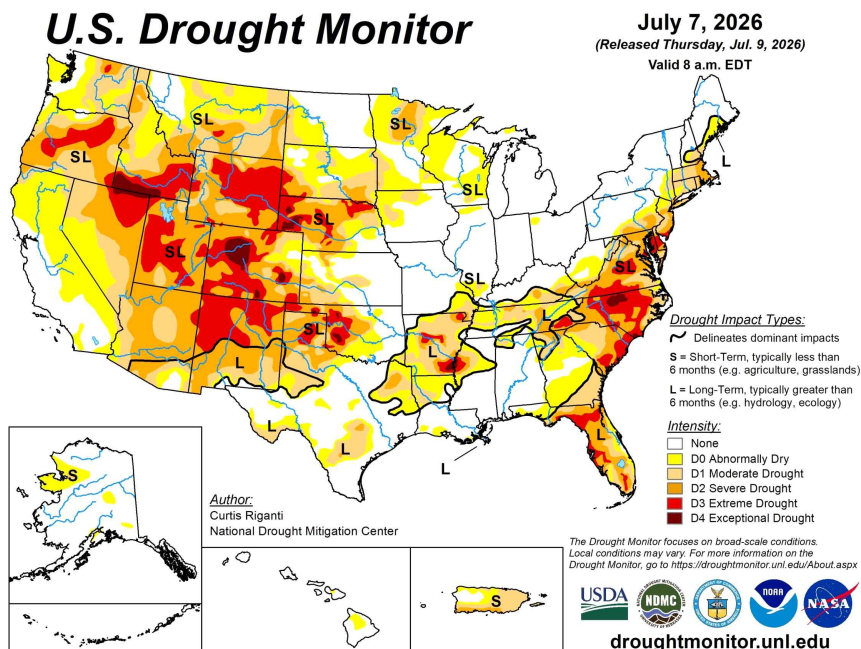




7월 1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3, No. 28)

□ 미국 기후 현황(2026/7/5-2026/7/11)

의미 있는 강수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했으며, 주 후반에는 강수량이 많아져(총 4~8인치 이상) 오하이오강과 미시시피강이 합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돌발홍수를 일으켰다. 이 지역에서 서부터 많은 비를 동반한 소나기(국지적으로 2~4인치 이상)가 중부 대서양 연안 주들과 뉴잉글랜드 남부까지 동쪽으로 확산되었다. 일부 예외적인 지역을 제외하면 강수는 대체로 약하거나 다소 많은 수준에 그쳤지만, 로키산맥 동쪽의 다른 많은 지역에도 얼마의 비가 내렸다. 기온이 평년 수준 또는 평년보다 높았고 작물의 수분 요구량이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 가능한 토양 수분 상태가 다소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물은 계속 양호한 생육 상태를 유지했으며, 7월 12일 기준 미국의 옥수수는 대략적으로 68%, 대두는 65%가 '양호~매우 양호' 등급을 받았다. 서부에서는 몬순 순환이 여전히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뚜렷한 소나기 활동은 주로 애리조나 남동부에서 콜로라도 동부를 잇는 선을 따라 동쪽 지역에 제한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었다. 주말까지 미국의 연초 이후 산불은 거의 360만 에이커의 초목을 태워, 10년 평균인 약 270만 에이커를 웃돌았다. 주간 평균기온은 사막 남서부, 북부 고평원, 북부 인터마운틴 웨스트, 남부 대서양 연안 주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일부에서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았다. 북동부, 태평양 연안 및 그 인근 지역, 중부·남부 평원에서 미시시피강 중·하류 계곡에 이르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이 관측되었다. 중서부 중심부에서는 한 주 내내 기온이 90° F를 넘지 않았으며, 옥수수벨트 서부 지역에서만 90° F를 초과하는 기온이 관측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 후반에는 몬태나 중부와 동부, 그리고 다코타주 서부에서 기온이 100° F를 넘어섰다.



□ 농업 현황 요약(2026/7/6-2026/7/12)

미국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기상 조건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 수준에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북부 평원, 로키산맥, 중서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3~9° F 높은 이상 기온을 보였다. 중부 대서양 연안과 북동부의 일부 지역에서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조건을 보였다. 한편 강수량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으며, 미시시피강 중류 계곡, 오하이오강 계곡, 중부 대서양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총강수량 측면에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집중되었고,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주간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반면, 서부와 남서부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북부 평원의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건조했으며, 이들 지역의 여러 주에서는 토양 수분이 ‘부족(short)’ 또는 ‘매우 부족’ 한 상태가 계속 보고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2026/7/5-2026/7/11)

■ 유럽:

5월 말 이후 세 번째 폭염이 유럽 서부를 강타한 반면, 동유럽에서는 더 서늘한 날씨가 최근의 더위를 대신했다. 서유럽의 강한 고기압 능선의 영향으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 다시 한 차례 낮 최고기온이 35~40° C(일부 지역은 그 이상)에 이르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으며, 잉글랜드 남동부에서는 최고기온이 30° C대 초중반에 달했다. 이번 폭염의 기온이 6월 말의 기록적인 폭염만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번이 5월 말 이후 세 번째 폭염이었다. 그럼에도 프랑스에서는 출사기에서 유럽기에 있는 옥수수가 조사 기간 내내 매일 낮 최고기온이 35° C를 넘는 더위에 노출되었으며, 7월 7일에는 최고기온이 40.8° C를 기록하기도 했다. 스페인 북부와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으며, 30° C대 후반의 낮 최고기온이 반복되면서 관개용수 수요가 증가했고, 생식생장기의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의 수량 전망이 악화되었다. 실제로 서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는 6월 중순 이후의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이로 인해 작물 생육은 빨라졌지만 장기간의 고온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결국 수량 감소를 초래했다. 반면, 유럽 동부를 가로지르는 제트기류가 크게 남쪽으로 굽어지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 또는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었고(북동부는 최대 3° C 낮음), 여름작물이 생식생장기에 접어들거나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다. 느리게 이동한 저기압성 폭풍의 영향으로 유럽 북동부에는 10~75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영양생장기에서 생식생장기에 있는 여름작물에서는, 아울러 개화기에서 등숙기에 있는 봄곡물에서도, 토양 수분이 유지되거나 개선되었다. 반면, 유럽 남동부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발칸반도의 생식생장기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와 그리스의 개화기 면화 생육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프랑스와 헝가리의 지상 기상관측소 자료는 누락되었거나 신뢰성이 의심되었으며,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더와 위성 자료를 사용했다.



■ 구소련(서부):

느리게 이동하는 저기압성 폭풍과 이에 동반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은 크게 낮아졌고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졌다. 저기압 지역이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북서부로 이동하면서 10~95mm의 보통에서 많은, 광범위한 비를 촉발했다. 또한 거의 정체된 전선대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중부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보통에서 많은 비가 띠 형태로 내렸고 반면에 전선의 서쪽과 바로 동쪽 지역에는 5~25mm의 비교적 적은 비가 내렸다. 그 결과 등숙기에 있는 봄곡물과 영양생장기에서 생식생장기에 있는 여름작물에 필요한 토양 수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더 동쪽의 러시아 남부연방관구와 북캅카스연방관구에서는 5~25mm의 비가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내렸으며, 로스토프주 일부 지역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매우 습했던 봄과 여름 전반기의 영향으로 러시아 서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토양 수분이 충분하거나 매우 풍부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 지역 서부의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2~4°C 낮아, 작물이 온도에 매우 민감한 생식생장기에 접어드는 시기의 고온 스트레스 위험이 해소되었다. 반면, 불가연방관구에서는 32~35°C의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져 봄밀과 봄보리의 생식생장기와 등숙기 생육이 더욱 빨라졌다.

■ 호주:

대륙의 주요 농업지역 대부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와 평년 수준의 기온이 다시 나타났다. 전주에 충분한 강우가 광범위하게 내린 이후, 조사 기간 동안 10mm 이상의 의미 있는 강수는 남호주와 빅토리아주의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었다. 가장 많은 비(국지적으로 25mm 이상)는 호주 남서부에서는 달링 스카프 서쪽, 남동부에서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의 남쪽과 동쪽에서 관측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각각 주요 겨울작물 재배지의 서쪽과 동쪽에 위치해 있다. 영양생장기의 겨울곡물과 유지작물은 최근 내린 비의 영향으로 생육이 양호했으며, 특히 장기간 가뭄에 시달려 온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전주의 비로 인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저수율은 저수용량의 52.8%까지 상승해 전월의 49.0%보다 높아졌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의 57.5%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 동아시아:

열대저기압 메이삭은 주 초에 중국 남부에 극심한 폭우를 가져왔으며, 광시에서는 600mm가 넘는 비를 내렸다. 이후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동부와 한반도에도 최대 300mm의 비를 내렸다. 더 북쪽의 헤이룽장성 일부 지역에는 25~100mm의 비가 내려 대두와 기타 여름작물의 토양 수분이 개선되었다. 주 후반에는 태풍 바비(Bavi)가 저장성에 상륙하면서 이미 습한 연안 지역에 추가적으로 비를 내렸다. 활발한 남서 몬순 기압골도 중국 남부에 추가적인 강수를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광범위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대부분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었으며(평년보다 최대 6°C 높음), 낮 최고기온은 대체로 30°C대 중반에서 후반을 기록했다. 풍부한 수분은 중국 남부와 동북부의 벼, 옥수수, 대두 재배지에 도움이 되었지만, 광시와 중국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홍수로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 아르헨티나:

자료없음

■ 브라질:

자료없음